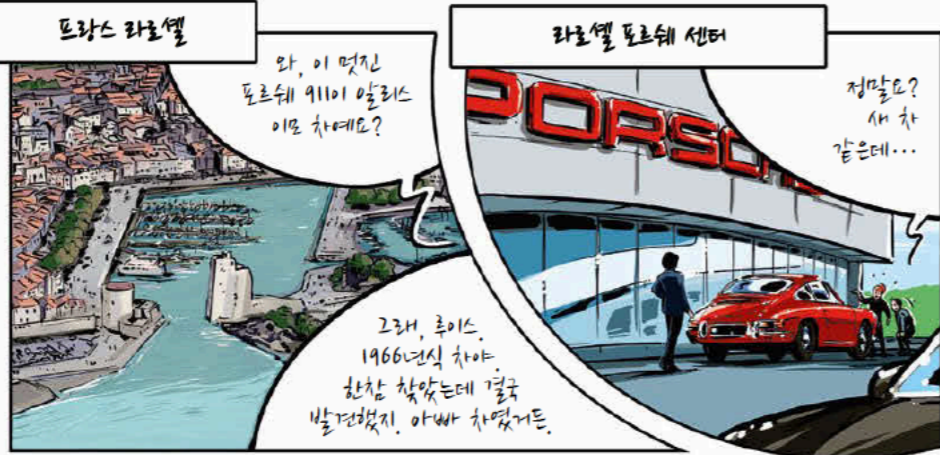


Porsche Teens

루이스와 펠릭스는 알리스 이모에게 포르쉐 911 이야기를 듣는다.

글: 쥘 데발로와 그림: 프랑수와 탈롱.



프랑스 라로셸

와, 이 멋진 포르쉐 911이 알리스 이모 차예요?

라로셸 포르쉐 센터

정말요? 새 차 같은데...

그래, 루이스. 1966년식 차야. 한참 찾았는데 결국 발견했지. 아바 차였거든.



페인트를 새로 칠해서 그럴 거야. 원래 색상인 시그널 레드도 바꿨어. 찾았을 때는 검은색이었거든.

농담 아니잖! 이 차가 진짜로 할아버지 차였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루이스, 차 밑에 뭔가 결정적인 단서가 있는지 찾아보자! 스티커나 그런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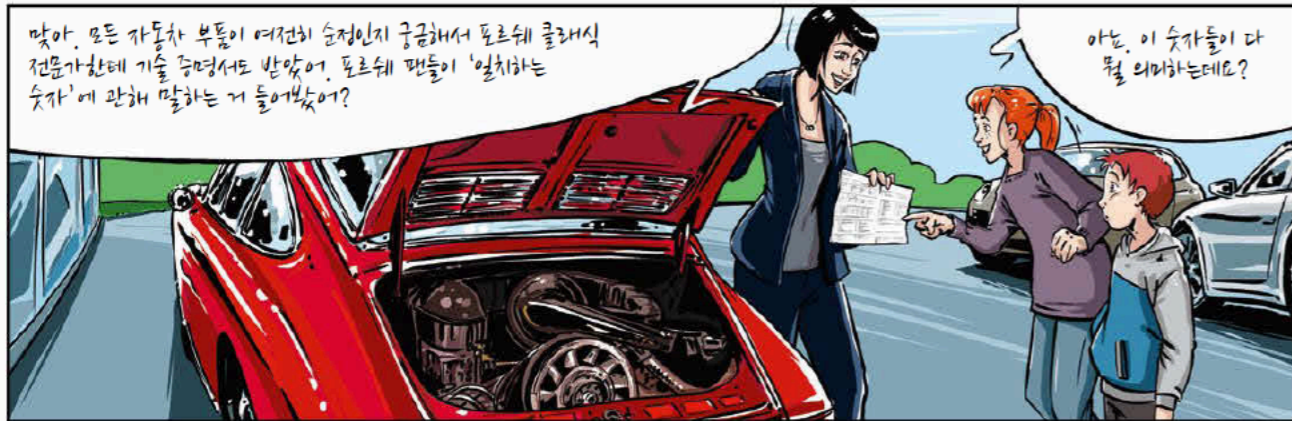


기다려 펠릭스, 알리스 이모가 확실하게 설명해 줄 거야.

알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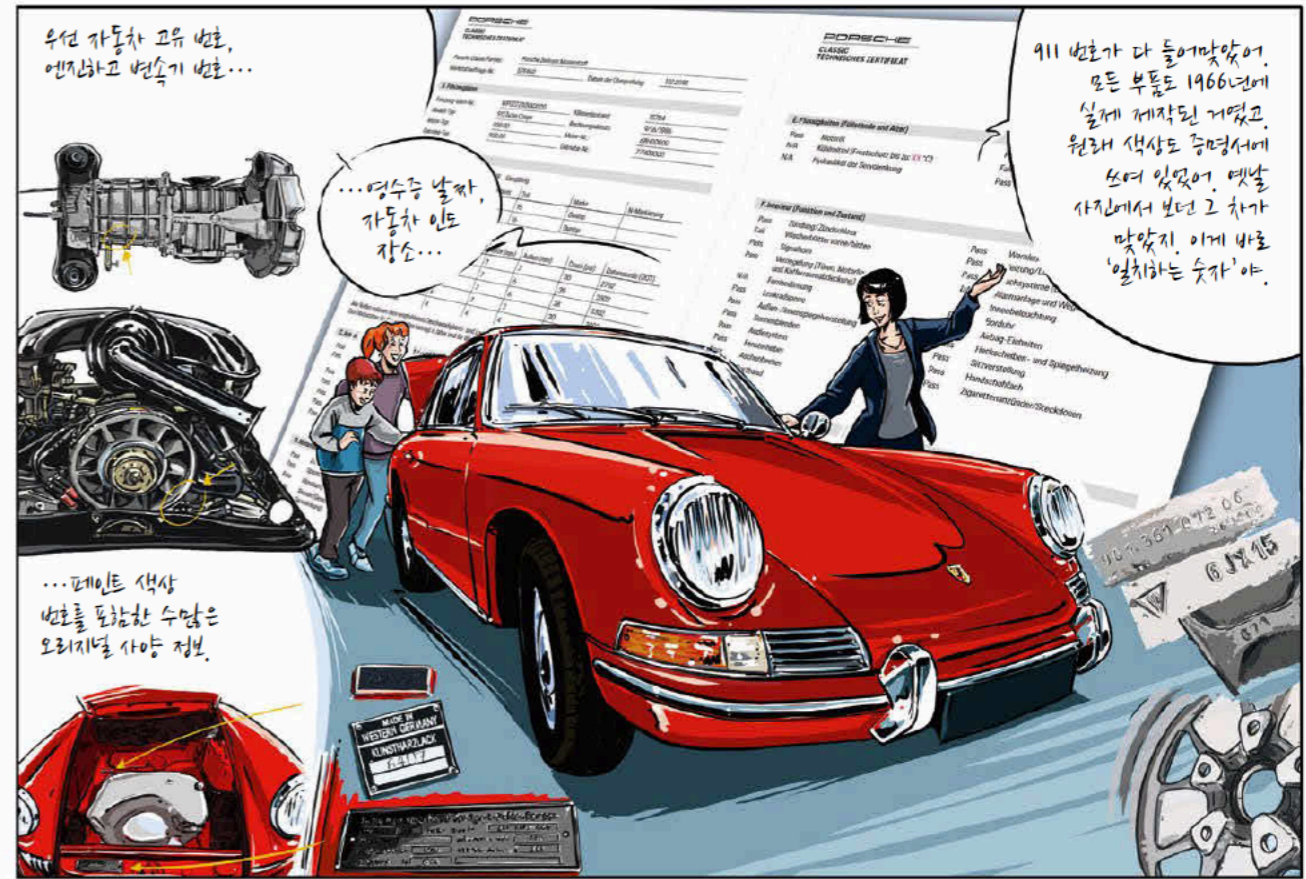
그러니까 말야, 나한테 오래된 자동차 사지니 한 장 있었어. 제작연도랑 아바가 언제 이 차를 팔았는지도 알았지. 이 정보를 이용해서 거대한 포르쉐 팬 커뮤니티에서 소유자를 찾기 시작했어. 그리고 파리에 사는 꽃 유튜버가라는 단서를 찾았지.

와, 진짜 탐정이 따로 없네요...



맞아. 모든 자동차 부품이 여전히 순정인지 궁금해서 포르쉐 클래식 전문가한테 기술 증명서도 받았어. 포르쉐 팬들이 일치하는 숫자에 관해 말하는 거 들어봤어?

아는, 이 숫자들이 다 뭘 의미하는데요?



우선 자동차 고유 번호, 엔진하고 변속기 번호...

...영수증 날짜, 자동차 인도 장소...

911 번호가 다 들어맞았어. 모든 부품은 1966년에 실제 제작된 거였고. 원래 색상도 증명서에 쓰여 있었어. 옛날 사진에서 보던 그 차가 맞았지. 이게 바로 일치하는 숫자야.

...페인트 색상 변화를 포함한 수많은 오리지널 사양 정보.



아바의 911이 제작되었을 때만 해도 손으로 작업이 정비를 적었거든. 문서는 봉인 필요하면 발급했고. 이제 포르쉐는 모든 제품 정보를 디지털로 작성해.



포르쉐 직원들이 워낙 정보를 꼼꼼하게 기록한 덕분에, 아바 차가 지금도 원래 상태라는 사실을 확실한 거지.



수많은 숫자 조합이 꼭 지문처럼 고유한 거네요!

멋지다! 포르쉐 탐정 놀이 재밌어요! 타는 거만 큼요...